구조적 실업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노동시장 개혁 등 장기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글 김석진 sjkim@lgeri.com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실업의 원인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하지만 크게 보면 경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의 두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우선, 경기가 나빠지면 많은 기업들이 망하거나 생산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기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구조적 요인으로 장기실업 발생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좋더라도 실업률이 0%가 되는 일은 없다. 그것은 경기와 상관없이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실업은 다시 마찰적 실업과 (좁은 의미의) 구조적 실업이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좋은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즉 직업 탐색에 걸리는 시간만큼 실업자로 지내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짧은 시간 내에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장기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제공되는 일자리의 구성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 고임금 직종에는 빈 자리가 없는 반면, 저학력 저임금 직종에서는 사람을 많이 뽑으려 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실업자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고 저학력자는 적다고 하자. 그러면 구조적인 불합치 현상으로 고학력자들이 장기간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구조적 고실업 지속

경제학자들은 현재 존재하는 실업 중 어느 만큼이 경기적이고 어느 만큼이 구조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적 실업률'을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해 냈다. 학자들에 따라 추정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개념도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추정결과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에 의하면 실제 실업률은 경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률로 분해할 수 있으며, 경기적 실업률은 불황 때에는 (+)가 되고 호황 때에는 (-)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경기적 실업보다는 구조적 실업이 실제의 실업에서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OECD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장기간 고실업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는 평균 6~8% 수준의 구조적 실업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한다. 반대로, 선진국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일본의 구조적 실업률은 1980년대의 2%대에서 1990년대 초 이후 장기 불황에 따라 최근에는 4% 수준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구조적 실업률 상승

최근 한국은행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중반 2%대였던 구조적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한 때 6% 정도로 올라갔다가 최근 수년간은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실업은 대부분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실의 실업이 주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실업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구조적인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ww.lgeri.com

* 조강래, 오지윤,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유연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11.